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4년 12월 29일(일) 제1522호

2025년 온누리교회 표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Come, Lord Jesus!
Revelation 22:20

예수 다시 오실 날 기다리며, 기도하는 한 해 선교헌금 작성, '오직 예수 신년새벽기도회' 등 이어져

2025년 온누리교회 표어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Come, Lord Jesus)다. 새해 온누리교회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예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기도한다. 새해 온누리교회는 기도와 예배에 집중하고, 이웃을 품고 돌보는 일에 힘쓰며,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전진한다.

그 포문은 '2025 선교헌금 작성'으로 연다. 1월 4일(토)과 5일(일), 11일(토)과 12일(일) 온누리교회 국내 모든 캠퍼스

주일예배에서 선교헌금을 봉헌한다. 이날 예배에서 나눠주는 '선교헌금 작성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거나 영상 예배 QR코드,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더보기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onnuri.org)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

1월 6일부터 11일까지는 '오직 예수 신년새벽기도회'가 열리고, 1월 10일부터 26일까지 차세대 파워워치 연합수련회 'Passion'이 막 오른다. 1월 13~17일 목회사관학교, 3월 1일 순장영성수련회, 3월 5일~4월 18일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 캠페인, 3월 10일~4월 18일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도 이어진다. 5월 5~6일 청년 러브소나타 동경, 5월 14~16일 회복축제, 6월 11~13일 여성기도부흥운동 '마리아행진', 6월 16일 법조인을 위한 맞춤전도집회, 7~8월 아웃리치, 9월 6~7일 사르밈 프로젝트, 10월 3~5일 추석 하비스트 연합수련회, 10월 4~5일 온누리교회 창립 40주년 기념주일, 10월 11~12일 추수감사주일, 10월 25~26일 엔젤트리, 10월 29~30일 러브소나타 시가, 11월 29일 임직예배, 12월 4일 창립 40주년 기념 '메시아 연주회', 12월 6일 장로장립예배 등도 준비하고 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예배로 마무리하는 2024, 기도로 맞이하는 2025!

송구영신예배, 신년예배, 오직 예수 신년새벽기도회

온누리교회가 예배로 2024년을 마무리하고, 기도로 2025년을 맞이한다. 온누리교회 2024-25 송구영신예배를 12월 31일(화) 오후 7시(1부), 오후 9시(2부), 오후 11시(3부)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드린다. 부전은 오후 8시(1부), 오후 10시(2부), 수원 오후 8시 30분(1부), 오후 11시(2부), 대전 오후 9시(1부), 11시(2부), 인천 오후 7시(1부), 오후 9시(2부), 평택 오후 9시, 남양주, 강동, 양지, 영종, 제주는 오후 11시 각 캠퍼스 본당에서 송구영신예배를 드린다(수원은 명지대학교 60주년 채플관).

2025년 신년예배는 1월 1일(수) 오전 9시(1부), 오전 11시 30분(2부)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드린다. 부전 오전 9시, 대전 오전 10시, 남양주 오전 11시 30분, 인천 오전 11시 본당에서 신년예배를 드린다. 수원, 평택, 강동, 양지, 영종, 제주는 신년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2025 오직 예수 신년새벽기도회 '새 힘 얻으리'가 시작된다. 1월 6일(월)부터 11일(토)까지 매일 오전 5시 30분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본당에서 진행된다.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과 CGN에서 실시간 중계한다. 1월 6일(월) '날개치며 솟구치는 독수리처럼' (사 40:26-31), 7일(화) '푸른 초장에 눕혀진 양처럼' (시편 23편), 8일(수) '높은 곳에서 뛰어나는 사슴처럼' (합 3:17-19), 9일(목) '은금으로 뒤덮인 비둘기처럼' (시 68:13, 19-35), 10일(금) '사냥꾼의 밧에서 풀려난 새처럼' (시편 124편), 11일(토)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말 4:1-6)을 주제로 이재훈 위임목사가 설교한다.

/ 홍하영 기자

온누리교회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

온누리교회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과 연계해서 실시한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연계를 원하는 성도들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onnuri.org) '기부증명서·연말정산' 페이지에서 '기부금 영수증 국세청 제출' 메뉴를 클릭하면 된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연계 신청을 하려면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는 '개인정보수집동의서'에 서명해서 재정국에 제출해야 한다.

FAX(02-793-9709)나 이메일(onnuri.finance@outlook.com)로 보내면 된다. 시스템 연

계가 완료되면 국세청 자료에 온누리교회 기부금 내역이 자동으로 등록된다. 이전처럼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성도들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onnuri.org) '기부증명서·연말정산' 페이지에서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발송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CGN과 NGO 더멋진세상도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다. CGN은 후원 홈페이지(give.cgntv.net), 국세청 홈택스, 전화(02-796-2243), NGO 더멋진세상은 온라인(www.abetterworld.or.kr), 국세청 홈택스, 전화(02-2271-2248)로 신청하면 된다.

CGN과 함께 일-일 통독!

하루 15분으로 1년 1독 완성

CGN 신규 성경통독 콘텐츠, 'CGN과 함께 일-일 통독' (이하 일-일 통독)이 2025년 1월 1일 기독 OTT '풍당'에서 공개된다. CGN TV 채널에서는 월~토 오전 8시, 주일 오전 6시 30분(분방)에 방송된다. 유튜브에서는 1월 1일 오후 6시에 공개된다. 1년 동안 성경을 1독 할 수 있는 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루 15분이

면 성경을 완독할 수 있다.

'일-일 통독'에서는 삽화와 더불어 성경 속 중요 성지와 핵심 사물의 사진을 직접 보여준다. 성경은 최신 버전의 개역개정판을 사용한다. '성경통독 이벤트'도 한다. 콘텐츠를 시청한 기간(1, 6, 12개월)에 따라 이벤트에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선물(아이패드, 독서대, 기프트콘 등)을 받을 수 있다. (QR코드 참고) / 홍하영 기자



A Bold Witness for Christ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성탄절에 자주 잊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크리스마스카드에도 마리아는 항상 등장하고, 동방박사들과 목자들은 자주 등장하는데 요셉과 예수님은 아직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탄생에서 귀한 믿음으로 통로가 된 사람입니다. 성탄의 사건에서 요셉이 보여준 믿음과 그 믿음으로 그가 감당했던 역할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인이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생존조차 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 육신의 아버지의 보호와 돌봄 없이 마리아가 혼자 예수님을 양육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초점을 두고, <마태복음>은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 육신의 아버지 요셉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족보가 나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족보를 통해 역사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등 구약 곳곳에 족보가 등장합니다. 당시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에게 족보는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나 변화를 알리는 중요한 기능을 했습니다. 족보를 통해 소개되는 인물이 누구인지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1절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자손과 땅을 주시고, 열방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에게는 강력한 통치와 견고한 왕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합하면 하나님 나라의 약속

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영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되 육신의 아버지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인 요셉을 통해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왕의 후손이면서 목수의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왕권이 몰락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후손이었던 요셉 가문은 아마 바벨론 포로 기간부터 목수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나사렛에 목수들이 많이 필요해서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요셉은 목수였을 뿐만 아니라 회당에서 열심히 히브리어를 배워서 성경을 읽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람어는 당시 생활 언어였기 때문에 당연히 했을 것이고, 어쩌면 헬라어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이 언어들을 사용하시는 것으로 보아 어릴 적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로운 사람 요셉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19절a).

이 표현은 요셉이 가정과 일터, 신앙의 모든 영역에서 올바르게 살고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의로운 요셉이 자신과 정혼한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에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계시대로 아기가 잉태된 것을 느꼈을 때 요셉에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말을 들은 요셉이 세 가지를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어서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첫째,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하는 마리아의 말을 믿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당시는 젊은 남녀가 자유롭게 교제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친밀하게 알고 결혼하기보다 잘 알지 못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둘째, 처녀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했다는 것을 믿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셋째, 그것이 다 믿어진다고 해도 왜 나와 마리아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직접 계시를 듣고 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었겠지만, 요셉은 마리아의 말을 믿어야 하고, 그 모든 상황에서 요구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정혼한 관계에 있는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했을까요? 정혼이라는 독특한 유대 문화를 사용하신 것이

니다. 당시 유대인의 결혼 문화에는 공식적인 부부가 되기 전에 정혼 혹은 약혼이라고 부르는 1년을 보냅니다. 이 기간을 보내고 공식적인 결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시대 약혼보다 훨씬 강한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이 기간에는 남편과 아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파혼하려면 이혼과 동일한 절차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함께 살지는 않습니다. 이 시대에는 없는 문화입니다. 정혼한 상태에서 자녀를 가지게 되면 적법하게 결혼한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것으로 인정받는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수치와 비난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예언에서 처녀에게서 태어남과 동시에 다윗의 법적 후손으로 오시며, 적법한 자녀의 신분을 얻고, 육신 부모의 보호를 받는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려고 정혼이라는 독특한 관계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임신한 것이 나타났을 때 파혼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율법에 근거하면 정혼한 상태에서 부정한 관계를 맺은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수치스러운 일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만일 요셉이 마리아를 버리면 공개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묵인하고 혼인하면 그가 수치를 당하며 살게 됩니다. 처음에는 요셉이 남모르게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마리아를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드러내면 마리아가 위험해질 수 있어서 남모르게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타납니다. 만일 그가 신중하지 못하고, 쉽게 분노하고, 감정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면 마리아와 예수님 모두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매우 신중했고,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마리아를 사랑하고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순종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할 때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네 아내로 맞아라.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성령으로 임신된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20~21절).

요셉에게도 동일한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꿈을 통해 주어진 계시이기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훈련이 안됐더라면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꿈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였고, 마리아

가 받은 계시와 동일한 계시임을 확인했습니다.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순종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받았던 감정적인 아픔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용기 있게 마리아를 받아들였습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받아들임으로 일어난 성탄은 그에게 믿음의 용기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요셉이 수치를 당하는 일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불명예스러운 평가를 받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조차 마리아를 믿을 수 없었는데, 누가 두 사람이 받은 계시를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었습니까? 요셉은 모든 수치와 불명예, 비난을 받아들일 것을 용기 있게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 요셉이 또 꿈을 꿔서 때 해를 피해 도망하라고 했습니다. 짙은 새벽에 가족을 끌고 애굽으로 가서 2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요셉이 꿈꾸던 결혼 생활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성탄은 믿음의 용기를 요구

예수님의 탄생을 이루어질 때 요셉에게 요구되었던 믿음의 용기가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도 요구됩니다. 예수님 오심은 자신이 주인 된 삶을 살던 이들에게 예수님이 주인된 삶으로 나오라는 믿음의 용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왕으로 군림하던 삶에서 예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삶으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휩쓸리는 삶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용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때때로 요셉이 받았던 오해와 조롱, 수치와 불명예를 당할 때 믿음의 용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받았을 때 아무리 큰 희생이 요구된다 할지라도 따르는 믿음의 용기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믿음의 용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계시된 것을 따를 수 있는 힘이 바로 믿음의 용기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그저 우리가 즐거운 문화생활을 즐기라고, 기분 전환하라고, 역사의 한 의미 있는 사건이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에 성탄의 시간에 믿음의 결단을 다시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심판자이시고, 다시 오실 주님이심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용기로 성탄을 맞이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키워드로 보는 '2024 온누리 선교'

온 누리에 하나님 나라를 ...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

2024년 온누리 선교를 한 마디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다.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전했다. 온 누리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집중했다.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 학교와 마을, 차세대와 리더십을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했다. 2024년 온누리 선교가 달려온 길을 키워드와 사진으로 정리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복음화와 교회 개척

몽골 선한이웃교회 개척

두란노국제선교회(TIM)는 2024년 4월 6일 몽골 울란바토르 다리이흐 지역에 '몽골 선한이웃교회'를 개척했다. 몽골 선한이웃교회는 주일에는 청장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토요일에는 차세대 예배와 한국어 교실을 운영한다. 주중에는 QT 및 성경공부를 하고 있다.

캄보디아 Acts29 프놈펜교회 개척

현재 캄보디아에 두란노국제선교회(TIM) 소

속 선교사가 개척한 교회가 일곱개 있다. 하지만 본부 교회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해서 지난 5월 19일 전략거점 지역인 캄보디아 프놈펜에 'Acts29 프놈펜교회'를 개척했다.

전방개척선교지 교회 건축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서남아시아 네팔, 필리핀 보홀은 전방개척지역(전 세계 가운데 복음화를 10% 미만으로 아직 복음의 영향력이 없거나 미미한 지역)이다. 두란노국제선교회(TIM)는 전방개척지역을 위해 코트디부아르, 네팔, 보홀에 복음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교회를 건축하고 있다.



모리타니아 아동 영양 증진 사업

NGO 더멋진세상은 아프리카 모리타니아 엘미나시 다르비다 마을 보건소와 조이센터를 통해 영양 결핍 아동들을 검진하고, 상태에 따라 영양 가루와 약품 등을 제공했다. 매년 300명 이상의 영양 결핍 아동을 돕고 있다. 더불어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 부모 인식 개선 교육을 하고 있다.



▲ 모리타니아 아동 영양 증진 사업.
◀ 캄보디아 'Acts29 프놈펜교회'.

코트디부아르 공동체 성경읽기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는 주민들이 다양한 종족 언어를 사용하고, 높은 문맹률이 특징이다. NGO 더멋진세상은 지난 1월부터 코트디부아르에서 'PRS(Public Reading of Scripture, 공동체 성경읽기)' 사업을 하면서 언어 훈련을 통한 성경 교육을 하고 있다. 매주 4,500여 명의 사람들이 가족과 마을 단위로 모여서 성경공부를 하고 있다.

학교와 마을



온누리M미션 이음한국어교실.

이음한국어교실 개교

온누리M미션이 안산시 교육지원청의 위탁을 받아 중도 입국 외국인 초등학교생에게 한국어 가르쳐 주는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안산 온누리M센터에서 낯선 한국과 한국어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교육하며, 섬기고 있다.

우간다 남수단 난민 급수시설

NGO 더멋진세상이 우간다 북부 팔로리나 난민촌에서 생활하는 남수단 난민들에게 안전한 마을을 선물했다. 난민들을 위한 전동급수시설을 설치해 주고, 초등학교에는 위생 화장실을 설치했다. 5개 급수 시설에서 난민 6,576

명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있다.

말라위 ECD 교육센터 건축

NGO 더멋진세상이 말라위 블랜타이어 지역에 'ECD(Early Childhood Development) 교육센터'를 건립했다. 말라위 ECD 교육센터에서는 3~5세 아동 100여 명을 다양한 교재와 교구를 활용해서 교육하고 있다. 학부모 대상으로 아동 영양 관련 교육도 하고 있다.



말라위 ECD 교육센터.

니카라과 기독교 학교 강당 건축

두란노국제선교회(TIM)가 니카라과에 있는 기독교 학교 'CFA(Camoapa Faith Academy

)'와 'CCA(Carazo Christian Academy)'에 강당을 건축했다. 지난 4월 19일 학교 강당 건축 감사예배를 드렸다. CFA와 CCA의 강당은 예배당으로도 사용될 예정이다.

차세대와 리더십

러시아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 교재 출판

두란노국제선교회(TIM)가 러시아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 교재를 출판했다. 러시아 크리스천 부모들이 이 교재를 통해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

비타민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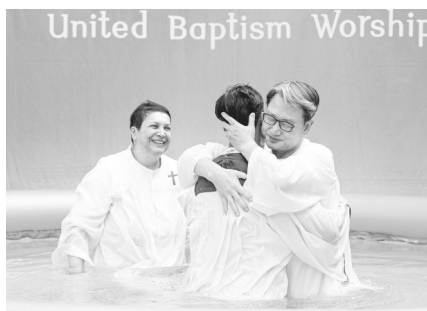
2000선교본부가 2024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아시아 기독교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온누리교회의 선교 비전과 방법을 알려주는 '비타민C'

를 개최했다. 상반기에는 총 66명(대만 46명, 말레이시아 12명, 몽골 8명), 하반기에는 총 77명(인도네시아 10명, 코트디부아르 57명, 몽골 10명)이 참가했다.

이주민 연합세례식

온누리M미션이 지난 8월 11일 연합세례식을 열었다. 한국, 페르시아, 아프가니스탄, 네팔, 중국, 몽골, 필리핀, 캄보디아 등 8개국에서 온 이주민 30명(유아 1명, 아동 1명, 성인 28명)이 세례를 받았다.

2024 서울-인천 제4차 로잔대회



온누리M미션 연합세례식.

지난 9월 22~28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2024 서울-인천 제4차 로잔대회'가 막 올랐다(이하 제4차 로잔대회). 전세계 200여 개국에서 복음주의 기독교 지도자, 목회자, 신학자, 기업인 등 5,300여 명이 참석했다.



2024 서울-인천 제4차 로잔대회.

온누리교회도 2000선교본부를 주축으로 제4차 로잔대회를 섬겼다. 8월 23~24일 로잔운영요원 수련회, 9월 21일 제4차 로잔대회 지도자 리셉션, 9월 30일 제4차 로잔대회 후속 세미나 등도 개최했다.

성경적 부모를 위한 '부모 면허'

상담가적 부모 되기!

박인경 사모
(한국심리상담연구소)

오늘은 '상담가적 부모'를 제목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 역할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신명기> 4장 9절에서 "척박한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잊지 말고, 그것들을 자손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신다. 부모는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부모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현대의 부모들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보다 자녀가 세상에 뒤처지지 않는지에 더욱 집중하는 것 같다.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한다.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자녀에게 복음을 증거하려면 부모 먼저 자신의 약점과 상처를 이해하고 치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상담하다 보면 믿음 좋은 부모라도 자녀에게 말씀이 잘 전달되지 않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는 부모가 몰랐던 자신의 상처를 자녀에게 쏟는 바람에 이미 부모와 자녀 관계가 상해 있기 때문이다.

상담가적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 먼저 상담과 코칭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과거의 어려운 경험들이 현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상담이 필요하다. 반면 상담을 통해서 나의 과거를 이해하고, 치유 받고 안정된 상태에서 성장하고 싶을 때는 코칭이 필요하다. 따라서 상담가적 부모가 되고 싶다면 상담과 코칭의 차이를 알고, 지금까지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거의 어려움을 돌아보면서 치유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의도하지 않게 부모의 약점과 약함, 아픔과 상처가 자녀에게 흘러가기도 한다. 그 아픔의

크기는 차이가 있겠지만, 부모의 아픔과 상처 하나 없이 사랑만 흘러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서 부모가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모르거나 직면하지 않으면 부모와 자녀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기 자신이나 낯선 대상을 대할 때 무엇을 근거로 이해하고 느낄까? 바로 부모와의 경험이다. 오래전 강의에서 소그룹을 인도했는데 꼭 칭찬하고 싶은 분이 있었다.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는 아주 아름다운 분이였다. 여느 때와 같이 칭찬했는데 얼굴이 점점 빨개지더니 나중에는 크게 당황하는 게 느껴졌다. 내가 실수한 것 같아서 강의 끝내고 사과했다. 알고 보니 그분은 어릴 때부터 남동생과 차별을 받으면서 자랐고, 한 번도 부모님께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자신이 왜 칭찬받으면 놀림을 받은 기분인지 깨달아서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했다. 이처럼 어린 시절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 치유 받을 기회가 없으면 시간이 지나도 상처로 남아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람의 마음은 혼자 형성할 수 없다.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생겨나고 성장한다.

사람에게는 시기마다 꼭 해결해야 할 발달 과제가 있다. 발달 과제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내가 해결해야 하는 것들을 말한다. 0~18개월 영아기에는 '기본 신뢰'를 획득해야 한다. 아기가 필요한 것이 생겨서 울 때 어디선가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면서 불편함이 해소되는 수많은 경험을 한다. 이 경험이 쌓여서 신뢰를 획득하면 사회에 나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엄마와 어울렸던 것처럼 문제없이 해결한다. 그러나 기본 신뢰 경험이 적으면 자녀들은 불신과 분리 불안이 생기기도 한다. 기본 신뢰가 잘 형성된 아이들은 부모를 안전 기지로 느낀다. 그 아이들은 마음에 안정감이 자리 잡고, 그 안정감을 밑천으로 커서도 편안하게 살 수 있다.

5살까지 이어지는 항문기에는 '자율성'을 획득해야 한다. 이때 배변 훈련을 하는데 너무 강압적으로 하면 자율성이 아닌 수치심을 갖

는다. 이 수치심이 강박적인 성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항문기에는 자녀가 스스로 행동하도록 격려해서 자율성을 획득하도록 해야 한다. 7살 전후 시기에는 '경쟁 주도성'을 획득해야 한다. 이 시기 아이들은 "내가 할 거야"라는 말을 자주 한다. 말을 잘 안 듣는다며 '미운 7살'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경쟁 주도성을 가지려는 시기이기 때문에 당연한 과정이다. 이때 지나친 간섭과 통제는 자녀에게 죄책감을 줄 수 있다.

초등학교에 들어갈 시기에는 '성취감'을 느끼게 해줘야 한다. 아이들의 작은 성취에도 칭찬하고 격려해 줘야 열등감을 방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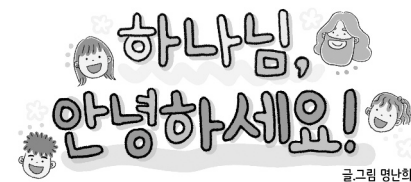
10대 청소년기에는 '자아 정체성'을 획득해야 한다. 이 시기 자녀는 부모에게 반항하면서도 자신의 존재와 목표를 알고 싶어 한다. 부모는 그런 자녀가 힘들고 어렵더라고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0~30대 초기 성인기에는 '친밀감'을 형성해야 한다. 친구와 연인, 부부 관계에서 친밀감을 느껴야 한다. 부부가 된 다음에도 친밀감을 느끼도록 노력해야 한다.

40~50대 중기 성인기에는 '재생산'을 획득해야 한다. 재생산이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안 된다면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60~75세 이상의 후기 성인기에는 '삶의 통합'을 획득해야 한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었나?'라고 질문하는 것이다. 자기 인생을 이해하고 설명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각 시기에 맞게 인생을 돌아보고, 한 단계씩 성장하면서 부모가 먼저 자신을 이해하고, 치유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래야만 자녀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좋은 상담가적 부모가 될 수 있다.

* 이 글은 기독교 OTT '풍당' 프로그램 '박인경 사모의 부모 면허 5편 상담가적 부모'를 요약 및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강의는 기독교 OTT '풍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1. 변하지 않는 것



성경 QUIZ



1. 2024년이 며칠 안 남았어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31일, 교회에서는 이 예배를 드려요. 이 예배 이름은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다'는 의미예요. 이 예배는 한 해 동안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살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새해에도 우리와 함께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시간이에요. 이 예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① 추수감사예배 ② 송구영신예배 ③ 신년 감사예배 ④ 성탄예배

2. 여러분은 2024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어떤 선물을 받았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무엇이었는데 생각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한 일을 떠올려보고 그림을 그리거나 글로 적어보세요.

* 정답과 함께 이름, 소속, 연락처를 적어서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차세대 독후감 대회 수상작

우리 우정은 영원하다!

며칠 전 친구가 내게 아끼는 인형을 선물로 달라고 했다. 누군가에게는 쉬운 문제일 수 있겠지만, 나에게는 너무 어려운 문제였다. 그 인형은 할머니가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다. '아주 소중한 인형인데 어찌지?'라며 고민했다.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쭙보고 싶다. 지혜로운 나의 예수님이 응답을 주실 때를 기다리기로 했다.

엄마가 책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읽어보라고 하셨다. 이 책을 읽으면 내 고민을 해결해 주실 것 같았다. 책을 읽으면서 또 고민에 빠졌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을 걸어야 하는데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내가 아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생명까지 바치셨는데, 정말 신앙이 좋은 어른들은 누군가의 죄를 위해 자신의 몸을 바칠 수 있다는 말일까? 나는 자신 없고 무서웠다. 그때 엄마가 "어른들도 인생을 살면서 해결하기 어렵고 힘든 고민을 안고 살아간단다. 그때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할 뿐이야"라고 말씀하셨다. 엄마 말을 듣고 내 마음이 편안해졌다. 예수님이 어른들에게, 그리고 10살인 나에게 똑같이 고민을 주시고, 해결책을 주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라 기도도 예수

님께 묻고, 응답을 듣기 위해 노력하는 착한 어린이가 될 것이다. 앞으로 어려운 문제나 고민이 있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고, 조금 더 양보하고, 친절을 베풀며 살 것이다. 예수님과 나는 아주 작고, 비밀스러운 고민까지 공유하는 완전 절친이다. 우리 우정은 영원하다!

"친구야~ 인형 많이 가져줘야 해. 나에겐 소중한 인형이니까!"

김소윤 학생
(서빙고 초등학교 2학년)

맛있는 말씀 해설

“... 여자의 자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창 3:15)

이 짧은 말씀은 ‘원 복음’, ‘작은 계시록’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맞이한 성탄절이 어떤 배경에서 시작되었는지 알려면 모든 예언서를 거슬러 올라가 오늘 본문에 이르러야 한다. 하나님은 지상에 가장 완벽한 세상 에덴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다. 모든 것이 첫 사람 아담과 하와의 것이었다. 오직 하나,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되는 인간 사이에 유일한 경계를 두셨는데 바로 ‘선악과’다. 선악과는 인간이 피조물임을 깨닫게 하는 유일한 표식이었다. 그 경계와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 뱀의 모습을 한 사탄이 다가왔고, 하와와 아담이 넘어지고 말았다. 이후 모든 인류는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궁극적으로 죄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말한다.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가? 기록하신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이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도, 영원한 생명도 잃어버렸다.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을 능력을 상실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그들을 유혹한 뱀을 저주하면서 하신 말씀이다. 그런데 인류가 범죄

를 저지른 직후 하신 이 말씀에 인류 구원을 위한 놀라운 약속이 담겨 있다.

첫째, 세상을 구원하신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다.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이라 하신 것은 불특정 다수의 여자를 말하지 않는다. 영어 번역본에 ‘the woman’은 곧 특정한 한 여자를 말한다. 후손이라는 말로도 한 사람을 가리킨다. ‘the son’, 한 아들을 의미한다. 모든 인류는 남자의 씨로 인해 출생하지만, 메시아는 여자의 몸만을 통해 태어난다고 하신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선지자 이사야는 이 말씀을 더욱 구체적으로 예언하였다(사 7:14).

그리스도가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셔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의 신분이 되었다. 죄인의 후손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할 수 있겠는가? 인간의 몸을 가지면서도 죄의 뿌리에서 자유로운 유일한 길이 성령으로 잉태된 동정녀 탄생이라는 방법이다. 신비가 상식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것이다. 마리아의 몸이 잉태된 아기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갈 4:4).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모든 아픔을 체휼하시고, 시험받으시되 죄가 없으신 분이 되게 하신 것이다. 동정녀 탄생은 그리스도의 무죄한 출생에 꼭 필요한 방법이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신 것이다.

둘째, 뱀 곧 사탄은 여자의 후손 발뒤꿈치를 상하게 만들 거라 하셨다. <요한계시록> 20장에 그 옛 뱀이 사탄이라는 사실을 밝힌다. 악한 자는 에덴에서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헤롯의 유아 학살, 광야의 시험,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고난과 십자가는 마귀가 그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이다. 발뒤꿈치가 상한 그의 시신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눕게 되었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다. 옛 뱀의 승리로 끝나는 것 같지만 사흘이 지난 새벽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부활 사건이 세 번째 드러난 계시였다.

셋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 하셨다. 발뒤꿈치와 머리는 상징이면서 서로 대비된다. 발뒤꿈치를 상하게 했다는 말은

일시적인 고난을 뜻하고, 머리를 밟았다는 것은 완전한 승리를 의미한다. 예수님의 손과 발, 옆구리에 상한 발뒤꿈치의 흔적이 남아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뱀의 머리를 밟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의 사망과 저주를 제거하셨다. 우리가 성탄을 축하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밟고 승리를 이루시기 위해 오신 날이기 때문이다.

성탄절은 은혜가 임한 절기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려던 오랜 구원 계획이 성취된 날이다. 평화와 기쁨, 소망과 사랑에 빛이 임했다. 모든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마음을 다해 기쁨으로 축하 인사를 건넬 수 있게 되었다. ‘메리 크리스마스!’ 당신을 위한 위대한 성탄을 축하한다.



도육환 목사
(영종온누리교회)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예수님

12월 30일~2025년 1월 5일
<요한계시록> 22:1~21,
<요한복음> 1:1~51



목상포인트 1
: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은 <창세기>의 에덴 동산을 연상시킨다. 옛 에덴을 넘어서는 완전한 새 에덴이다. 장차 우리가 누릴 새 에덴의 모습은 어떤지, 주님의 분명한 약속이 무엇인지 묵상하자.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을 본다. 강 좌우편에는 달마다 열두 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 나무가 있다. 하나님 이름이 그 이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대면해 섬기면서 영원히 왕 노릇 할 것이다. 다윗의 자손이시며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예수님은 속히 오실 것이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이다. 성도는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이 주신 모든 계시에 가감하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은 반드시 속히 오신다. 이를 믿는 성도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한다.

목상포인트 2: <요한복음>은 서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근원을 밝힌다. 예수님은 2천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근원을 묵상하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고, 만물의 창조주셨으며, 생명이셨고, 사람들의 빛이셨다. 빛이 어둠에 비치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참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나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기에 그분의 영광을 보며 은혜를 누리고 진리를 깨닫는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 받았으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는다.

목상포인트 3: 세례 요한은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명을 받았다.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만 높이는 세례 요한의 겸손을 묵상하자. 또한 공생애 시작 단계에서 높으신 권위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묵상하자.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자신을 소개한다. 또한 자신이 신발 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분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한다. 다음 날 예수님이 다가오시자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을 증언한다. 예수님을 따르게 된 안드레가 형제 ‘시몬’을 데려오니 예수님이 그를 ‘게바’라고 부르신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나사렛 예수가 율법에 기록된 그분이라고 전한다.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의 신성을 확인하자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고백한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고 말씀하신다.

- 적용을 위한 가이드

▶예수님은 반드시 속히 오신다고 약속하셨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의 기도를 기쁘게 드리고, 유한한 세상에서 영원한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자.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다. 인간이 만든 신과 비교할 수 없는 높으신 예수님을 주변 사람들과 다음 세대에게 전하자.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하고, 어디서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자. ▶세례 요한처럼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만 높이자. ▶새해를 맞이해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하며 기도 생활을 지속하는 경건 훈련을 결단하자. 말씀이신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겸손함과 진실함으로 2025년을 채워 가자.

/ <생명의 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몽골을 위하여!

저희 가정은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영원한무지개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20대 중반 전도사님을 영원한무지개교회 전체 리더로 세우려고 합니다. 아직 어리지만 더욱 성숙하고, 교회를 잘 섬기도록 기도해주시십시오. 또한 주변 아이들이 공부하고 노는 공간으로 어린이도서관을 제공하고 있는데 전기세가 부족 올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영원한무지개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주시십시오.

내년부터 저희 가정은 시내에서 3시간 정도 떨어진 ‘우들릭교회’를 섬기려고 준비 중입니다. 우들릭교회는 코로나19 이후 장년 예배를 회복하지 못했고, 한 달에 한 번 저희 가정이 가서 아동부와 종교동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2주에 한 번으로 예배를 늘리고, 그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들릭교회가 튼튼히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해주시십시오.

몽골은 전체적으로 경제가 성장해서 국민층이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소득만큼 성적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혼인 외 출산과 미성년자들의 출산 비율이 높아서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복음이 전해질 틈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확장되도록 기도해주시십시오.

/ 익명의 선교사



온 누리와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감사찬양예배, 사랑챔버 25주년 콘서트 등 이어져

온누리교회가 온 누리와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를 보냈다. 성탄감사찬양예배는 12월 25일(수)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본당에서 드렸다. 모든 성도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에서는 연합챔버, CRUX, 테너 최원휘, 소프라노 홍혜란, 온누리 세라핌 합창단 등이 특선했다. 서빙고온누리교회 로비에서는 온누리 색소폰앙상블팀의 연주도 이어졌다.

같은날 저녁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는 온누

리 사랑챔버 오케스트라 25주년 기념콘서트가 열렸다. 교역자 특순, 사랑챔버 연주, 배현경 성도(이정익의 단원 어머니) 간증, 캐롤 합창 등을 했다.

강석호 성도(서빙고온누리교회)는 “사랑챔버 콘서트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을 느끼고, 위로와 큰 감동을 선물 받았고”고 말했다.

대학청년부는 ‘2024 크리스마스 블레스’를 개최했다. 대학청년부 11개 공동체 소속 청년 1,300여 명이 화개제일교회,

해금강교회, 한숲농아인교회, 황산교회, 당포교회, 남도교포교회, 하서제일교회 등 지역교회에서 이웃 초청잔치, 교회꾸미기, 어린이 성경학교, 크리스마스 예배 등을 했다.

CGN 선교 다큐멘터리 ‘바울로부터’는 12월 25일 오후 10시 50분 공영방송 KBS1에서 방영됐다.

연말까지 성탄의 기쁨과 감사, 감동을 이어간다. 미디어사역본부에서 12월 31일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 건물 뒤편 벽면에 ‘미디어 파사드’ (건축과 미술, 빛과 음향을 일체화한 예술 공연)를 상영한다. 성탄절 온라인 전시회 ‘2024 온누리의 크리스마스’도 연말까지 이어진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보낸 크리스마스 카드를 12월 31일까지 온누리교회 공식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에 게시한다.

/ 홍하영 기자, 박지혜 기자

양재 이웃사랑팀 ‘기부자 감사패’ 수상

‘서초의 미래, 기부자 100인과의 동행’ 행사

양재 이웃사랑팀이 지난 12월 19일(목) 열린 ‘서초의 미래, 기부자 100인과의 동행’ (이하 기부자 100인과의 동행) 행사에서 ‘기부자 감사패’를 받았다.

‘기부자 100인과의 동행’은 서초구가 주최하고, 서초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하는 행사로 지역 사회를 위해 꾸준히 기부 활동에 참여해 온 기업과 병원, 종교시설과 주민 등 우수 기부자 100명을 초청해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다.

한편, 양재 이웃사랑팀이 돕고 있는 가정폭력피해자 쉼터에서 지난 21일(토) 선물 나눔 행사를 열었다. 양재 이웃사랑팀이 이불을 후원했다. 또한 앤젤트리를 통해 쉼터 자녀들의 옷과 생필품 등을 전달했다.

가정폭력피해자 쉼터 백옥선 관장은 “온누리교회에게 배운 섬김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쉼터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 홍하영 기자

온누리 장로합창단 단원 모집

1월 31일까지 전화 접수, 2월 1일 오디션

‘온누리 장로합창단’ 단원을 모집한다. 65세 미만 온누리교회 장로가 대상이다. 합창단, 성가대 경험, 성악을 전공한 장로는 연령 제한이 없다. 참여를 희망하는 온누리교회 장

로들은 1월 31일(금)까지 전화(010-5264-1191)로 신청하면 된다. 오디션은 2월 1일(토) 오전 11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비전홀에서 한다. 문의: 010-5264-1191

NGO 더멋진세상, 말라위 ECD 태블릿 배포

NGO 더멋진세상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협업해서 말라위 ECD(Early Childhood Development, 유치원) 센터에 교육용 태블릿PC를 배포했다. 이 태블릿PC에는 인터넷 없이도 접속할 수 있는 아동용 수학 과 영어 교구 ‘에누마스쿨’ 어플리케이션 등이 탑재되어 있다. 이 교육을 위해 ECD 센터 교사들은 두 달 전부터 실습했다.

말라위 박민영 PM은 “에누마스쿨이 배움의 즐거움뿐 아니라 학습 효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 홍하영 기자

열린다성경 스터디투어 참가자 모집

열린다성경 스터디투어 독일편 참가자를 모집한다. 2025년 1월 25일(토)부터 2월 4일(화)까지 ‘루터의 생애’를 주제로 독일을 일주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전화(010-4902-1022)로 신청하면 된다.

열린다성경 스터디투어는 매일 아침 1시간 30분씩 교회사와 세계사를 공부하고, 현장 답사하는 기독교 인문학 여행이다. 뤼센, 로텐부르크, 콘스탄츠 등지를 현장 답사한다.

문의: 010-4902-1022

CGN 신규 음악 콘텐츠 ‘오픈 스테이지’

2025년 1월 2일 기독 OTT ‘풍당’에서 공개

CGN이 신규 음악 콘텐츠 ‘찬양으로 드리는 기도 ‘오픈 스테이지’ (이하 오픈 스테이지)를 2025년 1월 2일(목) 기독 OTT ‘풍당’에서 공개한다. TV에서는 1월 2일 오후 6시 10분, 유튜브 채널은 1월 3일 오후 5시에 공개된다.

오픈 스테이지는 다양한 연령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게 크리스천 뮤지션들의 간증과 음악을 선보이는 프로그램이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는 취지로 기획했다. 1월 2일 공개되는 오픈 스테이지 1회 주인공은 ‘꽃밭에서’, ‘안개’ 등을 부른 가수 정훈희다.

성탄절 독후감 대회 시상식

차세대와 성인 성도 20명 수상

온누리도서관이 개최한 ‘2024 성탄절 독후감 대회’ 시상식이 지난 12월 22일(일) 온누리도서관(온누리청소년센터 3층)에서 열렸다. 노치형 목사(온누리도서관 담당), 김형중 장로, 한호성 팀장, 온누리도서관 봉사자, 차세대, 학부모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성탄절 독후감 대회 시상식은 김형중 장로 대표기도, 노치형 목사 설교, 한호성 팀장 심사평, 시상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차세대와 성

인 성도 20명이 ‘감동상’과 ‘은혜상’을 수상했다. 감동상은 김찬우, 최솔희, 황하나, 김송윤, 권이은, 최하이, 황도훈이, 은혜상은 김이준, 김이안, 김세음, 성지아, 김도이, 손소은, 전우성, 전하영, 김이름, 조아인, 백주은, 김시우, 조영선이 수상했다. 한호성 팀장은 “온누리도서관이 추구하는 ‘전교인의 독서를 통한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의 성장’에 걸 맞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감사했다”고 말했다.

온누리 색소폰앙상블 단원 모집

군, 교도소, 지역 교회 등 위문 공연 등

온누리 색소폰앙상블 단원을 모집한다. 온누리 색소폰앙상블은 2004년 온누리교회 색소폰 동아리로 시작해서 20년째 찬양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매년 성탄절 등 절기에 서빙고온누리교회 로비에서 색소폰 연주를 하고, 평소에는 군과

교도소, 지역 교회 등을 찾아가 위문 공연을 하고 있다.

온누리 색소폰앙상블에서는 12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다. 온누리 색소폰앙상블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성도들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010-5289-0973

12월 세례자

■양재	김상화 강시은	최수호 231212	안중열 850228	■SNS
김예찬 921022	박 별 231011	최제성 김예나	장수연 970206	강현승 990617
노현수 910201	박영민 권슬기	최하늘 200520	정다다 870107	권보은 941212
박민우 831106	박하연 230515	최원휘 홍혜란	입교	박재경 000919
이경미 860104	박민우 송 이		김나연 950902	석미경 871108
임유미 660111	서나윤 221209	〈대학청년〉		유성운 870322
임현준 810430	서형원 윤유나	■갈렙		장유리 920126
최지수 870716	안지엘 220108	유아	김윤희 931120	조현아 960727
허경식 630211	안광욱 박효정	장소엘 240129	이현섭 911104	
입교	이시아 231220	장형원 박승유	이현진 850620	■W
김지원 200506	이형민 김민정			입교
유아	장하진 231122	■여호수아	■Pole2	오수민 970507
김사랑 230420	장진수 남민경	곽아영 850302	입교	
김대건 이효진	정하성 231122	김대영 960320		
김이현 240215	정유철 강선아	김찬중 930518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우측 QR 코드를 찍으면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장로칼럼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조청구 장로
(성동광진공동체)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送舊迎新)’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있어 그 고되고 험한 길을 걸을 수 있었다. 하나님의 자녀 되어 예배하는 삶을 산 것도 한없는 은혜였다. 역대급 폭염이 여름 내내 온 나라를 달구고, 기습 폭우로 농수산물 먹거리 위험에 속았으며 살았다. 우리 사회를 옥죄는 난제(難題)와 갈등을 풀기 위한 숙론(熟論)에도 공감과 소통이 실종돼 마음이 몹시 답답하게 살아왔다. 이 나라에 대내외적으로 험난한 파고(波高)가 몰아치는 상황인데, 예기치 못한 구렁텅이에도 빠져 ‘세계 제로’가 되고 말았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안타깝고 황당할 따름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전 3:11a).

지금의 아픔과 불안, 좌절, 애달팠던 속앓이는 하나님이 그분의 때에 영원함을 따라 치유하고, 생명의 길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시 23:1).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안팎의 시련과 위기 속에서 소망과 기대를 말하기가 마음이 조금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과 희망을 담은 푸른 초장과 설만한 물가가 열릴 것이다. 깨어난 국민이 있고, 위기에 정면으로 맞서는 기업이 있어서 희망을 살리고, 더 멋진 세상이 열릴 것이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넘어설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말자. 자기 위치에서 제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것만이 이 위험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다. 엄동설한(嚴冬雪寒) 얼음장 밑에서도 따뜻한 봄을 준비

하는 물은 힘차게 흐르고 있다.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처럼 누더기를 걸쳐도 부끄럼 없이 당당하고, 가진 것 다 잃고도 읊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하를 얻고도 다 잊처럼 잊드려 회개하는 크고 넓은 사람으로 거듭나자. 눈비에도 지지 않고, 바람에도 지지 않고, “강건하라, 평안하라”는 말씀 따라 담대히 일어서자. 아픈 아이가 있으면 돌봐주고, 지친 엄마 있으면 짐 들어주고, 병든 사람 있으면 병 고침을 위해 기도하자. 미움 대신 사랑이, 거짓보다 진실이, 외모보다 내면의 성숙을 채워가자.

난독의 천재 아인슈타인은 세상을 사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했다. 하나는 기적이란 없는 듯 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다. 어쩌면 인류 문명을 꽃피운 힘의 원천이 이 같은 삶의 태도에서 비롯됐는지도 모른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한 것 같지만, 고통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가득하다. 인생에서 겪는 고통과 시련이 불이 쇠를 단련하듯 결국 우리를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게 될 것이다. 역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 가는 거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이 당신 백성들의 시련과 고통을 보시고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두시겠나.

“여호와와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하게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신 33:12) 하셨으니, 곧 희망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해가 내는 빛으로, 달이 내는 좋은 빛으로 머리 위에 머물러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가장 높으신 분의 그늘에 사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보호를 받을 거라는 믿음으로 이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모두가 승리자가 되자. 새해에는 해 아래 사는 기쁨과 희망, 새 생명 가운데 은혜를 입은 자로 감사가 넘쳐나기를 소망한다.

권사칼럼

하나님 앞에서 다짐

문재숙 명예권사
(서초B공동체)

나는 너무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인데 온누리교회 명예권사라는 직분이 주어졌다. 이토록 큰 직분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온누리교회에 감사하고 싶다.

사실 나는 2004년 수원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권사 직분을 받았었다. 그 교회에 출석하기 이전에도 온누리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경기 경찰청장을 했던 남편을 따라 수원에서 생활해야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했다. 그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더니 남편과 나에게 장로와 권사 임직을 받으라는 요청이 있었다. 원래 온누리교회를 섬기던 사람인지라 다른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도 되는지 고민하고, 결정하기가 어려워서故 하용조 목사님께 상의를 드렸다.故 하용조 목사님은 우리 부부의 고민을 들으시더니 “직분은 귀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에서 직분을 주실 때,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감사하게 받으라”고 권하셨다. 그렇게 첫 권사 임직을 받았다.

시간이 흘러 온누리교회로 다시 돌아왔지만, 이전 교회에서 받았던 직분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었다. 직분 없이도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는 직분을 소홀히 여겼던 것 같다. 직분이 있든 없든 내 신앙생활에는 문제 될 게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직분에 대한 마음을 주셨다. 직분이 갖는 무게를 묵상하게 하셨다. 직분자가 해야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셨다. 그렇게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명예권사 임직 신청을 했다.

명예권사 임직 신청을 하고 지난 시간을 돌

이켜 봤다. 권사라면 삶 속에서 그 이름에 맞는 향기가 나야 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았다. 늘 가슴 한편에 부끄러운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을 안고 살았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며 직분에 맞고, 그 이름에 어울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로 다짐했다.

6개월 동안 교육받으면서 배운 게 참 많다. 특히 러빙핸즈, 주차봉사 등을 섬기면서 많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다. 고무장갑을 끼고 교회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그동안 놓친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깨달았다. 늘 편하게만 다니던 교회가, 늘 청결했던 교회가 누군가의 헌신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분들의 손길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봉사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 감동을 주시려고 직분의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마음이 들었다. 직분을 스스로 자랑이나 신분으로 생각하지 않고, 더 낮은 자세로 교회를 섬겨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명예권사 임직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 다짐한 게 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다. 교회에만 머무르지 않고, 세상에 나아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로 다짐했다.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 봤다. 나는 일평생 국악을 해온 사람이다. 국가무형문화재로 등록돼 있기도 하다. 교회에서 명예권사 직분을 받았듯이, 나라에서 받은 이 직분을 잘 활용해서 국악으로 전 세계에 하나님과 한국 문화를 알리고 싶다. 지금 국악계는 무속신앙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있다. 그곳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기 바란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국악이 되기를 소망한다. 많은 사람이 국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오기를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으로 세상에 아름다운 우리의 선율을 들려주며 그 안에 하나님 사랑 이야기를 담아 흘러보내기를 소망한다.

신앙에세이

황유일 전도사
(꿈이자라는땅)

12월 한 달 동안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며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가졌다. 이 특별한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할 기회가 있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았다.

나는 선교사인 부모님을 따라 대만과 미얀마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휴탕물에서 수영하고, 맨발로 뛰놀며, 코코넛을 따먹으며 자랐다.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지내던 나는 한국으로 돌아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처음 한국 학교에서의 경험은 문화 충격 그 자체였다. 친구들과 사이의 거친 말투와 익숙하지 않은

경쟁문화 속에서 나는 조용히 지내는 학생이었다. 그러던 중 고등학교 2학년 때 전교 회장 선거에 도전했다. 주변 친구들이 모두 나를 말했다. 상대 후보는 잘생기고, 키도 크고, 운동도 잘하는 인기 많은 학생이었기 때문이었다. 가장 친한 친구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 전교 회장 아무나 하는 줄 알아? 그건 하늘의 별 따기야!”

이처럼 ‘하늘의 별 따기’는 불가능하거나 이루기 어려운 일을 표현할 때 흔히 사용하는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하늘의 별’을 따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까?

청년들에게는 취업이, 결혼한 이들에게는 자녀를 믿음 안에서 양육하는 것이, 청소년들에게는 좋은 성적이나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 티켓을 얻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일 수 있다. 코로나19 시기에는 마스크를 사거나 백신을 확보하는 일이 하늘의 별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하늘의 별 따기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한다. 우리가 도저히 손에 넣을 수 없을 것 같은 하늘의 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빌립보서> 2장 6-8절은 이렇게 기록한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별을 따기 위해 애쓰지만, 세상의 별은 모두 일시적이다. 성공, 명예, 부를 추구하며 손을 뻗지만, 그것들은 금세 사라지고 만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하늘의 별이다. 그분은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분이다.

우리가 살아가며 어떤 별을 따기 위해 노력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 예수님께 나아가고, 목자들이 천사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았듯이, 우리도 그분을 만나고자 간절히 나아가야 한다.

2024년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이 땅에 오신 하늘의 별 예수님을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결단을 하기를 소망한다. 그분은 우리의 빛이 되시고, 길을 인도하시며, 모든 슬픔과 아픔 속에서 참된 소망이 되어주신다. 캄캄한 밤하늘을 밝히는 별처럼,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빛으로 다가오신다. 나도 평생 그 별을 따라가기로 결단한다.

특히 내가 섬겼던 도곡 중등부, 양재 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부모님들 그리고 온 누리가족 모두가 이 영원한 빛을 붙잡고, 새해에도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한다. 하늘의 별이 이 땅에 오셨다.

http://www.onnuri.org			
국내 온누리교회 ● 이재훈 위임목사 • 서빙교 박종길 목사 (02) 793-9686(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양재 강부호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포로 31길 70 햇빛선교회 • 부천 정재욱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김승훈 목사 (031) 895-6500 1709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김상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문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 남양주 이기복 목사 (031) 515-3521-4(대표) 12249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20-14 • 평택 신동식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흥1로 2길 61 2층 • 인천 김승수 목사 (032) 437-9686(대표) 2198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75 • 강릉 이준호 목사 (02) 475-9686 06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 양지 박철웅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 영종 도유환 목사 (032) 752-7937 22377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로 49 • 제주 노규석 목사 (064) 794-8090 6352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화역사로 601 • 안산 온누리M센터 김태완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기도처 • 태안온누리 최영민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서산온누리 최영민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쌍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 봉화온누리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 진새골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정열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USA • 샌디에이고 이민욱 목사 1-619-847-4147 898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정창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괌 김형철 목사 1-671-734-8322 155 Father Duenas St. Manglao Guam 96913 ■미동부 • 보스턴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rn MA 01801 U.S.A. • 시카고 이종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뉴욕IN2 심상현 목사 1-212-427-2055 35 W 31st street 5fl, New York, NY, 10001 •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미북부	•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서재범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ward HWY Anchorage, AK 99503 • 밴쿠버 이재정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오세아니아 •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8 Main Ave, Lidcombe NSW 2141 Australia • 오를랜드 조준목 목사 64-21-0810-3132 470 Glenfield Rd. Glenfield Auckland New zealand • 홍콩 문영재 목사 852-2506-0089 6/F, Tower 1, South Seas Centre, 75 Mody Rd, Tsim ■일본 • 동경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9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김철희 목사 81-6-6121-2015 (542-0083)Naniwa 3F 1-3-19Higasinsaitbasi Chuoku Osakasi Japan • 우에다 하카타마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 요코하마 니시야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야치오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AGAWA-KU SHIMAI-CHO61 EHWA DAIAMOND 2F • 교토 권영환 목사 81-75-748-93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ukyo-ku, Kyoto-si ■중동 • 아부다비 김도균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동남아시아 • 베트남 이길택 목사 84-8-5412-2773 3SL 20-1 Grandveiv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illegible]

소천

12/21(토) 강남C 조선헌 이사 부친상 고 조창옥
 12/21(토) 양재A 김경남 성도 모친상 고 김채순
 12/22(일) 하모니 김대수 성도 모친상 고 김영순
 12/22(일) 가정사역 최병구 성도 병모상 고 김명식
 12/23(월) 고양은행 박상호 성도 모친상, 이은주 성도 시모상 고 황경숙
 12/23(월) 남대문회합 이강배 장로 모친상, 김옥자 권사 시모상 고 한용순
 12/23(월) 도곡 연합회 성도 모친상 고 선의남
 12/23(월) 서초C 공광진 집사 모친상 고 유주일
 12/24(화) 양천 최소영 성도 부친상 고 최창근
 12/25(수) 서초B 여은경 집사 부친상 고 어수현
 12/25(수) 천양사역 백승근 성도 배우자상 고 김은경
 12/26(목) 성동광진 이한열 장로 모친상, 윤경 권사 시모상 고 차순복
 12/26(목) 가정사역 이은실 권사 모친상, 윤진완 집사 병모상 고 고춘자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인용
 편집부장: 김남현
 기자: 김현준, 홍하영, 박지혜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6959-0001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온누리복지재단

온누리복지재단 후원회차
 하나는행/573-910015-15105/(복)온누리복지재단
 문의: 황찬범 간사(02-3215-3413)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 배식 중·석식 봉사자 모집(개인, 단체 가능)
 일시: 중식(11:00~14:00), 석식(16:30~18:30)
 문의: 서민정 사회복지사(02-3474-6080)
 ※점심식사 제공, 정기봉사자 우대

서림용산노인종합복지관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봉사
 자격: 경로식당 배식봉사를 희망하는 누구나
 신청: 복지와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신청
 문의: 우성경 사회복지사(02-794-6100)

서림서울역쪽방상담소 우리동네구강관리플러센티 봉사자 모집
 내용: 치과 의료진 어시스트 및 안내
 자격: 치과위생사 또는 치과위생학과 학생
 시간: 오전(10시~12시), 오후(14시~17시),요일 및 시간 협의
 문의: 전현미 치과위생사(070-4153-4547)

온누리요양센터 이미용 자원봉사자 모집
 대상: 치매, 중풍 등 입소 어르신(외부 미용실 이용 어려운 외상 어르신)
 내용: 이미용 봉사(개인, 단체 가능)
 자격: 이미용 자격증 소지자
 일시: 평일 09:30~11:30 또는 13:30~16:00
 장소: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양지온누리교회 부근)
 문의: 배일환 사회복지사(070-4489-6880)

재정

온누리교회협의 현금 매뉴에서 모바일현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하세요.
현금온라인 안내
 신일주현금: 하나는행 573-810034-10105
 주일현금: 하나는행 573-910018-28205
 감사현금: 하나는행 573-910018-27605
 해외선교현금: 하나는행 573-810034-09105
 비전현금: 하나는행 573-910009-96104
 절기현금: 하나는행 573-910009-99004

상담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청소년수련관 3층)
 상담접수: 02-793-2997, 010-4215-3675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면접상담: 개인, 부부, 아동, 청소년, 가족
 심리검사: 각종 심리검사

양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커피숍 지동문 안쪽)
 상담접수: 02-570-7536, 010-4684-7536(문자전용), 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료 프로그램
 법률 상담: 주일만 가능(예약 필수)
 세무 상담: 둘째 주일만 가능(예약 필수)

광고

서빙고 의료데스크 의료진 모집
 분야: 의사, 약사, 간호사
 시간: 주일 9시~14시(한 달에 한 번 로테이션)
 문의: 김정숙 권사(010-3753-0175)

인천온누리교회 행정간사 모집
 모집: 행정업무 및 시설관리
 우대: 인근 거주자, 컴퓨터활용능력자, 운전기능사(1종보통)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교회양식)
 접수: bamaby1091@gmail.com
 문의: 신상민(010-8469-1091)

햇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초빙
 분야: 조직신학
 접수: 2025년 2월 3일(월)~13일(목) 15:00까지
 문의: 02-570-7192
 *홈페이지(www.ttu.ac.kr)에서 초빙공고 참조

안산 M센터 의료팀 봉사자 모집
 모집: 약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위생사
 시간: 매월 셋째 주 오후 1시~4시
 문의: 서달원 팀장(010-7666-7528)